

# 제2의 도약을 위한 대응책 시급하다



장 수 옥

농민신문사 취재국 경제팀 차장

짧은 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건강을 오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국내 낙농업! 희망도 절망도 아닌  
위기의 상황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해  
이성적인 대응책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이다.

국내 낙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으리란 전망은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지난해말 급작스럽게 터진 우유과동으로 낙농업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

당장 채화분유로 영세유업체와 낙협이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낙농가들은 유대의 일부를 현품으로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잃은 국산분유는 성수기인 봄이 돼도 소진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시유 소비부진에다 그동안 국산분유를 쓰던 업체들이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되자 값싼 수입모조분유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재고분유는 이제 정책적인 개입없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낙농현안으로 떠오른 재고분유문제는 정부나 업계, 낙농가 모두 그동안 개방과 국제화시대에 소홀히 대비해왔던 당연한 결과요. 국내낙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빨리 현실화된 것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우유과동만 해도 그렇다. 무책임한 비방전을 벌인 업체들, 행정관리부처의 이원화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결국 그같은 사태는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더 큰 원인이다. 수입개방시대에 우유 및 유제품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낙농기반 강화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 했으나 낙진법개정안을 정부나 업계가 아닌 일부 지역 낙농가와 생산자단체가 반대해서 무산되지 않았

던가.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낙농가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낙농여건은 낙농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하다. 생산쪽만 봐도 사육규모가 작고 노동집약형으로 노력비등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조사료 이용이 부진하고 농후사료 의존도가 높아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마리당 산유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원유 생산비는 높다.

이미 세계가 한 울타리가 된 마당에 국내산보다 2분의 1~3분의 1 정도로 값싼 수입유제품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시장을 잠식하리란 예상은 당연한 것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5년뒤인 2001년경이면 분유와 치즈의 90%, 발효유 70%, 버터 60% 이상이 수입유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또 멸균유의 유통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호주등의 압력에 굴복할 경우 국내산 원유의 70% 이상을 점하는 시유시장도 수입멸균유에 상당부분 잠식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현 상태로 간다면 수년안에 우리 국민들이 사먹는 유제품의 절반이상이 수입산으로 변화하고 유제품의 외국종속화가 심화될 것이란 결론에 이른다. 이는 결국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외국제품에 의존, 식량안보상의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됨을 뜻한다.

이렇듯 값싼 유제품의 수입증가와 그에 따른 국산 우유의 자급률 하락등의 현상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국내 낙농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내낙농업이 총체적인 난국이자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낙농을 둘러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낙농업은 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식량안보측면에서 최소한 자급률을 지켜나가야 한다. 국내 낙농업이 위기의 상황이자 전환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현상이 곧 낙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유리한 자료도 얼마든지 있다. 세계 유제품 교역량이 전체 생산량의 5%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생산하고 있는 유제품은 자국민의 기본 식량자원이지 주요 교역품이 아니며 수출국은 매우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어느나라든 경쟁력만 갖춘다면 오히려 수출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낙관적인 분석이 그것이다.

시유가 수입환원유와 비교해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살균처리를 최소화하고 신선도가 보장되는 고급 시유등 신선유제품 개발로 맞서나간다면 경쟁에서 우위와 차별성을 확보할 것이란 분석도 긍정적으로 보려는 쪽의 견해다.

결국 국제화시대에 국내낙농이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이 확보돼야 하고 이러한 목표는 낙농가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가 합쳐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착유젖소 한마리당 연간 산유량이 94년 현재 5천7백33kg으로 일본의 6천8백15kg이나 미국의 6천9백96kg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젖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양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개량사업에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사료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규모확대가 불가피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없을 정도로 원유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정부는 농가가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행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재조정, 배합사료를 포함한 수입단미사료, TMR사료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영세율 적용실시등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원유는 생산 및 소비의 특성상 농가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선 정책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국내 낙농생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의지가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낙농제도개선위의 개선안이 사문화되지 않고 조속히 시행, 제도적인 틀을 갖춰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짧은 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건강을 오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국내 낙농업! 희망도 절망도 아닌 위기의 상황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해 이성적인 대응책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이다.